

점자지도 덕분에 처음으로  
“꿈이 생겼어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 눈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닫히고, 세상도 닫히고 맙니다

1926년, 송암 박두성 선생님은  
일제의 눈을 피해 한글 점자 표기법  
'훈맹정음'을 발표했습니다.

점자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세상과  
이어지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점자지도는  
시각장애인들이 세계를 꿈꾸게 합니다.



초등학생 지원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오로지 **청각**과 **촉각**에  
의지하여 세상을  
알아가고 있어요.





# 지금까지 지원이가 생각한 세상은 자신이 걸어가는 길 외에는 모두 암흑이었습니다.

어두운 공간에 홀로 있다는 생각에 밖에 나가는 것을  
점점 꺼리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맹학교 지리 수업에서  
**점자지도**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이는 달라지기 시작했죠.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주변부터 우리도시, 우리나라,  
세계를 손끝으로 느끼며 보게 되었고  
주변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둡다고 생각했던 주변의 모습들을  
하나, 둘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점자도서관을 찾아가 세계 150여개  
나라의 위치와 산맥, 사막 등을 손끝으로 느끼며  
**넓고 다양한 세상을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제주도 올레길을 걷는 상상을 하고,  
또 하루는 고비사막을  
걷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점자지도 덕분에 지원이는 처음으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숨겨진 곳들을 탐험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탐험가가 되는 것입니다.

“점자지도는 어두웠던 제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었어요!  
장애가 없는 사람처럼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어요.”



**점자지도는**  
**전국 맹학교와 시각장애인 복지관,**  
**점자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점자지도  
세계 점자지도  
서울특별시 점자지도  
6대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경기도 점자지도  
맹학교 주변안내 점자지도

시각장애인이 지도를 읽고  
세계를 꿈꿀 수 있도록  
국토지리정보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